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격 체계 대조 연구*

성충훈

스페인 · 중남미학과

머리말

스페인어의 격을 나타내는 요소들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적당한 격조사들이 붙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예로서 *María compra un libro*는 ‘마리아 책 한 권 산다’가 아니고 ‘마리아가 책 한 권을 산다’라고 해야 올바른 우리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와 ‘-을’은 각각 주어와 목적어를 나타내 주는 격조사이다. 이처럼 격과 격조사에 대한 이해는 스페인어와 한국어, 양자간의 번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페인어의 격은 인칭대명사를 제외하고 어순과 전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우리말의 격은 격조사들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동일한 ‘*María*’가 문장에서의 위치와 전치사의 有·無에 따라 우리말로써는 주어인 ‘마리아가’, 직접목적어인 ‘마리아를’, 간접목적어인 ‘마리아에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격은 명사들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función*)을 하는가를 보여 준다.

스페인어의 전치사들은 격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전치사들의 용법은 상세히 연구되어, 알맞은 우리말 격조사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우리말의 격조사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서, 스페인어의 주격은 ‘-가, -이’로, 대격은 ‘-를, -을’로, 여격은 ‘-에게, -한테, -께’로, 속격은 일반적으로 ‘-의’로 번역해 주면 된다. 이외에 탈격은 다른 여러

* 이 논문은 2001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가지 부사격 조사들과 대응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격 체계를 대조하여 격이 양국어의 문장 내에서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살펴보고, 명칭만 다를 뿐 그 기능이 동일한 격들을 찾아내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스페인어 학습 시에 어려움을 많이 주는 탈격의 전치사들을 우리말의 부사격 조사들과 비교하여 용법상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 격의 개념

격(格)은 희랍어 *ptōsis*, 라틴어 *casus*, 영어 *case*가 차례로 번역되어져 온 것으로, 순 우리말로로는 ‘자리’ 또는 ‘듬’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Case의 어원인 *casus*가 ‘떨어짐’이나 ‘일탈’을 의미했던 것에 비해, *case*의 번역인 格은 일본 문법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資格을 의미한다.”¹⁾ 즉 격은 우리말에서 보면 ‘체언이 문장 안에서 가지는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관계, 다시 말해서 체언이 문장 안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또한 스페인어에서는 “문장에서 명사가 굴절(屈折)을 통하여 일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 취하는 형태”²⁾로 정의 내리고 있다. 여기에서 ‘명사의 형태’를 언급함은 형태적인 측면을 격의 성립에 주요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격이란 용어는 굴절(*flexión*)에 의해 실현될 때만 쓰였다. 즉 명사에 굴절접사가 결합하여 격을 구별해 줄 때는 격이라 부르고, 스페인어의 *a*나 *de*와 같은 전치사에 의하여 이들이 구별될 때는 격이라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격은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굴절접

1) 김기혁(1995), 『국어문법연구 -형태·통어론-』, 서울: 박이정출판사, 513쪽.

2) “Forma que adopta un nombre para desempeñar una determinada función en la frase mediante flexión”, Lázaro Carreter, F.(1974), *Diccionario de términos filológicos*, Madrid: Gredos. 82쪽.

사에 의해서든 전치사, 조사 또는 어순에 의해서든 격을 구별하는 수단이 언어적으로 표현되면 격 범주를 인정하고 있다.

서구 문법에서 격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형태, 즉 명사의 어형 변화 또는 격어미에 의한 표시를 가리키는 것이었음은 다음 라틴어의 어형 변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Caso	Singular	Plural
Nominativo	amicus	amici
Vocativo	amice	amici
Acusativo	amicum	amicos
Genitivo	amici	amicorum
Dativo	amico	amicis
Ablativo	amico	amicis

위 보기에서 ‘친구’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어근 ‘ami-’와 뒤따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어미 ‘-cus’, ‘-ce’, ‘-cum’ ... 등에 의해 나타나 격을 표시해 준다.

그러나 격은 형태적 측면을 크게 중시하기는 하였지만 형태에 의해서만 설정된 것은 아니다. 우선 Nominativo, Vocativo, Acusativo, Genitivo 등 격의 이름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문장에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 즉 명사의 문법적 관계가 통사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³⁾

이처럼 격이 형태와 기능을 근거로 하는 문법 범주이지만 여기에는 의미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즉 Dativo가 ‘주다’와 관련되고, Ablativo가

3) “Lyons(1969)에서는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tion)으로 인식되는 7가지의 격을 보기로 들고 있다. 1. Subjective(Nominative) 2. Objective (Accusative) 3. Indirect Object(Dative) 4. Adnominal possessive(Genitive) 5. Instrumental 6. Agentive 7. Comitive”, 김기혁, 앞의 책 510쪽에서 재인용.

‘장소, 이동’과 관련되어 있음은⁴⁾ 격이 의미에도 근거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격이란 형태, 의미, 기능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문법 기준이 종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문법 범주이다.

II. 스페인어의 격 체계

스페인어의 명사는 인칭대명사⁵⁾를 제외하고는 격에 따른 형태 변화를 하지 않으며, 이 격은 명사의 위치 또는 語順과 전치사에 의해서 나타난다. 스페인어의 격은 다음과 같이 6개로 분류된다: 주격(nominativo), 속격(genitivo), 대격(acusativo), 여격(dativo), 호격(vocativo), 탈격(ablative).⁶⁾

1. 주격(nominativo)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주어이거나 혹은 명사술어(predicado nominal) 일 때 이를 주격이라고 한다.

- ①. Andrés tiene un coche
- ②. Ese es Juan

위의 ①, ②문장들에서 Andrés와 Juan은 각각 주어와 명사술어이므로

-
- 4) “분리, 더 나아가서 한 장소의 멀어짐을 나타내는 처소적 기능을 나타내는 격을 ablative라 한다.” Jean Dubois y otros(1979), *Diccionario de lingüística*, Madrid: Alianza, 4쪽.
 - 5) 이에 대해 Roca-Pons(1980: 175쪽)는 “인칭대명사는 고유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필요한 모델이나 라틴어 모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 6) 격의 분류는 Seco R.(1975), *Manual de gramática española*, Madrid: Aguilar, 155-165쪽을 참조함.

주격이다. 주격인 명사들은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는다.

2. 속격(genitivo)

하나의 명사가 소유(posesión), 소속(pertenencia), 재료(materia)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 de를 통해 다른 명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명사는 속격이 된다.

- ①. la petaca de Andrés
- ②. la conducta de Andrés
- ③. la mesa de pino

위 ①에서 petaca와 Andrés는 전치사 de에 의해서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Andrés는 속격이 된다. ②의 conducta는 Andrés의 소속을 나타내며, Andrés는 속격이 된다. ③에서는, de에 의해 mesa의 재료를 나타내는 pino는 속격이 된다.

3. 대격(acusativo)

문장에서 타동사의 직접목적어가 되어 완전한 문장이 되게 하는 명사는 대격이 된다.

- ①. El hombre ha dado una limosna
- ②. Ayer ha visto mi madre a Andrés

위 ①에서는 dar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una limosna가 대격이 되며, ②에서는 전치사 a에 의해 목적어로 구별되는 Andrés가 대격이 된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의 위치가 주격과 대격을 결정 지을 수도 있으며, 어순이나 전치사 a의 사용과는 관계없이 문장의 의미로 인해서 주격과 대격이 구별될 수도 있다.

- ③ a. La muerte de Juan ocasionó una gran desgracia
- b. Una gran desgracia ocasionó la muerte de Juan
- ④ a. El negocio produjo un gran rendimiento
- b. Gran rendimiento produjo el negocio

위 ③ a,b에서는 문장 끝에 위치한 ‘una gran desgracia’와 ‘la muerte de Juan’이 각각 대격이 되며, ④ a,b에서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 ‘gran rendimiento’가 語順에 관계없이 목적어인 대격이 된다.

4. 여격(dativo)

문장에서 간접목적어가 되는 명사는 여격이 된다.

- ①. El cura ha regalado un libro a Andrés
- ②. A Andrés le gustan las patatas

위 ①,②에서는 전치사 a에 의해서 Andrés가 간접 목적어가 되므로 여격이다.

5. 호격(vocativo)

사람이나 의인화된 사물을 부르는 명사를 호격이라 한다.

- ①. Juan, abre la puerta
- ②. ¡Cielos, ayudadme!

위 ①,②에서는 Juan과 Cielos가 각각 호격이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호격은 다음과 같이 감탄사를 동반한다.

- ¡Eh, Juan!
- ¡Oye, María!

6. 탈격(ablativo)

문장에서 서술어에 일정한 상황, 즉 장소, 시간, 방법, 도구, 사건, 동반 등을 부가하는 명사들은 탈격이 된다.

- ①. Mi madre salió con Andrés
- ②. Los amigos hablan de Andrés
- ③. Lola se quedó por Andrés
- ④. El alcalde me ha mandado recuerdos por Andrés
- ⑤. El establecimiento no marcha sin Andrés
- ⑥. El perro salió corriendo tras Andrés
- ⑦. El policía se adelantó hacia Andrés
- ⑧. Todo el mundo truena contra Andrés

위 ①에서 ⑧까지의 모든 문장에서 Andrés는 여러 가지 전치사들에 의해서 탈격을 나타낸다. ①의 con은 동반, ②의 de는 대상, ③의 por는 원인, ④의 por는 수단 혹은 도구, ⑤의 sin은 분리, ⑥과 ⑦의 tras와 hacia는 위치, ⑧의 contra는 반대를 각각 나타낸다.

III. 한국어의 격 체계

한국어의 격 체계⁷⁾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를 보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만형의⁸⁾ 분류를 따르기로 한다.

7) 남기심(1996: 76-77쪽)은 다음과 같이 한국어의 격 체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한국어에는 체언의 어형 변화도 없고 어순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독립된 조사가 있어서 인구어의 격에 해당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 한국어의 격이란 인구어의 체언의 어형 변화에 근거하여 그 어형의 변화라는 형태를 문법적으로 격이라 이름 붙여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어 문법에 있어서 인구어의 격 형태에 상당하는 부분이 조사이며, 한국어의 여러 가지 조사의 용법을 규명하고 이런 조사들 중 어떤 조사들의 용법이 어떤 종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공통점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일정한 명칭으로 지칭할 수 있으며, 이렇게 범주화의 관점이 다른 이유로 여러 유형의 격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것이다.”

1. 주격

주격 조사에는 ‘-가, -이, -에서, -께서’ 등이 있으며, 체언이나 용언(동사, 형용사)의 명사형을 주어가 되게 한다.

나무가 자란다	물이 흐른다
우리 회사에서 이겼다	아버지께서 오셨다

위의 문장들에서 주격 조사가 붙은 나무, 물, 우리 회사, 아버지 등은 모두 주어이다.

2. 서술격

앞의 체언이 문장의 서술어가 되게 하며, 격조사로는 ‘-이다’ 하나뿐이다.⁹⁾

철호는 중학생이다 이것은 꽃이다

3. 관형격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을 관형어가 되게 하며, 격조사는 ‘-의’ 하나뿐이다.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너의 생각이 우리 전체의 뜻은 아니다

그러나 체언과 체언이 연결될 때에는 ‘-의’를 생략하기도 한다.

우리의 나라 → 우리 나라

8) 이만형(1993), 『중학문법』 자습서, 서울: 지학사. 1996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는 ‘주격, 관형격, 목적격, 부사격, 호격, 보격, 서술격’으로 분류되어 있다.

9) “서술격 조사는 체언으로 하여금 주어의 내용을 지정, 서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준다. 이런 점을 중시하여 ‘이다’를 지정사(指定詞) 또는 잡음씨라고 부르는 일도 있으나 이곳에서는 그 비자립적 성격을 고려하여 조사로 보기로 하였으므로 격조사의 한 갈래로 간주하게 되었다.” 남기심, 고영근(1989),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96쪽.

또한 ‘-의’가 가진 기능이 다음과 같이 모호할 때는 문맥으로 파악해야 한다.

나의 사진 → ①. 내가 가진 사진 ②. 내가 찍은 사진 ③. 나를 찍은 사진

4. 목적격

앞의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을 목적어가 되게 하며, 격조사로는 ‘-을, -(르)를’이 있다.

나는 술을 심을 테니, 너는 대를 심어라.

그러나 타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경우에도 ‘-을, -를’이 붙을 때가 있다:
그는 학교를 갔다.(지향점의 부사격) 기계에 손을 잘렸다.(주격)

5. 보격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 아래에 붙어 그것이 문장의 보어가 되게 하며, 격조사로는 ‘-가, -이’가 있으며, ‘되다, 아니다’의 서술어가 따라 온다.¹⁰⁾

구름이 비가 된다
이것은 꽃이 아니다

6. 호격

부름을 나타내는 독립어가 되게 하며, 격조사로는 ‘-아, -야, -여, -이여, -이시여’ 등이 있다.

철수야, 놀러 가자
순국 선열의 영령이시여, 고이 잠드소서

10) “보격조사는 형태상으로 보편적 주격조사 ‘이/가’와 차이가 없다. 서술격조사의 부정어인 형용사 ‘아니다’와 동사 ‘되다’의 지배를 받는 ‘이/가’가 보격조사이다.” 남기심, 고영근, 앞의 책, 97쪽.

7. 부사격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을 부사어가 되게 하며, 다음과 같이 부사격 조사의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

갈 래	종 류	쓰 이 는 예	
처	장 소	에, 에서	아이들이 강에서 수영한다.
	시 간	에	진달래는 이른 봄에 핀다.
소	낙착점	에게, 한테, 께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
	단 위	에	노트 한 권에 얼마지요?
	지향점	에, (으)로	나는 오늘도 독서실에 간다.
출 발 점	에서, 에게서, 한테서	그가 시골에서 찾아왔다.	
이유·원인	에, (으)로	친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도 구	(으)로	칼로 연필을 깎는다.	
자 격	(으)로(서)	영수는 청소년 국가 대표 선수로 출전했다.	
비 교	만큼, 만, 하고, 보다, 에서	너만큼은 나도 하겠다.	
함 께	와/과, 하고	영수야, 나와 수영장에 가자.	
바 께	으(로), 가/이	술이 식초가 되었다.	

IV. 대조 분석

이상과 같이 양국어의 격 체계를 연구해 본 결과, 양국어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격과 한 언어에서만 존재하는 격, 명칭은 다르지만 문장 내에서 기능이 비슷한 격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들을 대조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양국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격

1.1. 주격

양국어에 모두 주격이 있다. 스페인어의 주격은 아무런 격표지가 없는 반면, 한국어에는 ‘-가, -이, -에서, -께서’ 등의 격조사가 붙는다.

Andrés tiene un coche
안드레스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Mi padre está leyendo un periódico
나의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고 계신다

1.2. 호격

양국어에 모두 호격이 있다. 스페인어의 호격에는 격표지가 없지만 한국어에는 ‘-아, -야, -여, -이여, -이시여’ 등의 격조사가 붙는다.

Juan, abre la puerta
환아, 문 열어라
Cielos, ayudadme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2.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격

2.1. 서술격

스페인어에는 없는 격으로서, 격조사 ‘-이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나는 학생이다 이것은 꽃이다

2.2. 보격

문장의 보어가 되며, 격조사로는 ‘-가, -이’가 있다.
구름이 비가 된다
이것은 꽃이 아니다

3. 스페인어의 대격과 한국어의 목적격

스페인어의 대격과 한국어의 목적격은 그 명칭만 다를 뿐 문장 내에서

똑같은 기능을 한다. 즉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가 된다.

스페인어에서는 語順과 전치사 a에 의해서 대격임을 알 수 있고, 한국어에서는 격조사 ‘-을, -(으)를’에 의해서 알 수 있다.

El hombre ha dado una limosna
그 사람은 동냥을 주었다
Ayer ha visto mi madre a Andrés
어제 나의 어머니께서 안드레스를 보셨다

4. 스페인어의 여격과 한국어의 부사격

스페인어의 여격은 간접 목적어를 나타내며 주로 전치사 a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격은 부사격이며, 격조사 ‘-에게, -한테, -께’ 등이 있다.

El maestro ha traído un libro a Andrés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안드레스에게 가지고 오셨다
Pedro hace regalos a su novia
페드로는 그의 애인에게 선물을 한다

5. 스페인어의 탈격과 한국어의 부사격

스페인어의 탈격은 전치사 con, de, por, sin, hacia 등에 의해서 나타나며, 한국어의 부사격 역시 앞에서 살펴 본대로 여러 가지의 부사격 조사들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들 탈격과 부사격은 쓰임과 용법이 비슷한데, 스페인어의 문장들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Mi madre salió con Andrés
스페인어-‘동반’의 탈격 한국어-‘함께’의 부사격
- ②. Lola se quedó por Andrés
스페인어-‘원인’의 탈격 한국어-‘이유.원인’의 부사격
- ③. El perro salió corriendo tras Andrés
El policía se adelantó hacia Andrés
스페인어-‘방향’의 탈격 한국어-‘지향점’의 부사격

V. 스페인어의 탈격과 한국어의 부사격의 의미분석

위에서 본 것처럼 스페인어의 탈격과 한국어의 부사격에는 비슷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학습 중에 어려움을 주는 격조사와 전치사들의 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때를 나타내는 격

때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격조사는 '-에' 뿐이지만, 스페인어에는 전치사 'a, de, para, por' 등이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격조사 '-에'에 해당하는 스페인어의 전치사는 'a'이다:

마리아는 아침 9시에 도착했다

María ha llegado a las 9 de la mañana

*María ha llegado por las 9 de la mañana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정확히 밝히지 않을 때는 'por'를 사용한다:

마리아는 아침에 도착했다.

María ha llegado por la mañana

*María ha llegado a la mañana

시간의 전체, 즉 *durante*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de'를 쓴다:¹¹⁾

나는 밤에 일한다

Trabajo de noche

Tengo horario de mañana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과 함께 분명치 않은 기한(plazo)을 표현할 때는 'para'를 사용한다:

11) Valentín García, Y.(1988), *Claudicación en el uso de preposiciones*, Madrid: Gredos, 139쪽 참조.

Me casaré para mayo
 Las fiestas son para la semana que viene

2. 지향점을 나타내는 격

한국어에서 지향점을 나타내는 격조사는 ‘-에, -(으)로’가 있고, 스페인어의 전치사는 ‘a, hacia, para’ 등이 있다.

나는 서울에 간다 나는 서울로 간다

위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전치사들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들을 보자:

- ①. Voy a Seúl ②. Voy hacia Seúl
 ③. Voy para Seúl

위 ①의 문장에서 a는 귀착점(목적지)을 나타내어 ‘서울에 간다’라는 의미이며, ②의 hacia는 ‘en dirección Seúl’의 의미로서, 우리말로는 ‘서울 쪽으로’라는 표현이 되며, ③은 ①의 문장과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

3. 도구(수단)를 나타내는 격

한국어의 격조사 ‘-(으)로, (으)로써’는 도구를 나타내고, 스페인어에는 전치사 ‘con, en, por’ 등이 도구 혹은 수단을 나타낸다.

칼로 연필을 깎는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Lo cortó con un cuchillo Lo dijo en broma
 Contestó en latín Llamó por teléfono

4. 유래(출발점)를 나타내는 격

유래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격조사는 ‘-서, -에서, -에게서’가 있고, 스페인어의 전치사에는 origen 혹은 procedencia를 나타내는 ‘de’와 ‘desde’가 있다.

어디서 왔니? 서울에서 왔다

Soy de Corea. Llegó de Aranjuez
desde Seúl hasta Busán desde la creación del mundo

5. 이유(원인)를 나타내는 격

이유(원인)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격조사는 ‘-에, (으)로’ 등이 있고, 스페인어에는 전치사 ‘por’가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어 격조사 ‘-(으)로’는 도구(수단)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에는 그 뜻에 알맞은 전치사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 예문에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는 사랑으로 그 일을 하였다.
 Él lo hizo por amor (사랑으로 인하여)
 Él lo hizo con amor (사랑을 가지고)

José는 친구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하였다.
 José lo hizo por la ayuda del amigo (도움으로 인하여)
 José lo hizo con la ayuda del amigo (도움을 가지고)

맺음말

이상과 같이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격 체계를 대조해 본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스페인어의 격은 인칭대명사를 제외하고 語順과 전치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한국어의 격은 격조사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주격과 호격은 양국어에 공통으로 있으며, 서술격과 보격은 한국어에만 존재한다. 스페인어의 대격과 한국어의 목적격은 둘 다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동일한 기능을 한다. 이와 함께 스페인어의 여격과 탈격은 한국어의 부사격과 상응하여 간접 목적어와 상황보어를 각각 나타낸다.

그러므로 스페인어의 명사는 문장에서의 위치와 전치사에 의해 알맞은 우리말의 격조사들과 함께 번역된다. 즉 주격 명사는 ‘-가, -이, -에서, -께서’로, 대격 명사는 ‘-을, -(으)를’로, 여격 명사는 ‘-에게, -한테, -께’로,

속격 명사는 ‘-의’로, 호격 명사는 ‘-아, -야, -여, -이여, -이시여’로, 탈격 명사들은 ‘동반, 원인, 방향’ 등을 나타내며 ‘-와/과, -에, -(으)로’ 등으로 각각 번역된다.

특히 스페인어의 탈격과 한국어의 부사격에는 비슷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때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격조사는 ‘-에’이며, 스페인어에는 전치사 ‘a, de, para, por’ 등이 사용된다. 시간을 나타낼 때는 a,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정확히 밝히지 않을 때는 por, 시간의 전체, 즉 durante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de, 분명치 않은 기한을 표현할 때는 para를 쓴다.

지향점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격조사는 ‘-에, -(으)로’가 있고, 스페인의 전치사에는 ‘a, hacia, para’ 등이 있다. 이 경우 a는 목적지를 나타내어 ‘...에’가 되며, hacia는 방향을 나타내어 ‘...쪽으로’가 된다. Para는 a와 그 쓰임이 거의 비슷하다. 한국어의 격조사 ‘-(으)로, (으)로써’는 도구, 수단을 나타내고, 스페인어에는 전치사 con, en, por 등이 나타낸다. Con은 주로 도구를, en과 por는 수단을 나타낸다.

출발점(유래)을 뜻하는 한국어의 격조사는 ‘-서, -에서, -에게서’가 있고, 스페인어의 전치사에는 de와 desde가 있다. 이유(원인)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격조사는 ‘-에, -(으)로’ 등이 있고, 스페인어에는 전치사 por가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어 격조사 ‘-(으)로’는 도구(수단)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에는 그 뜻에 알맞은 전치사를 사용해야 한다. 즉 이유(원인)의 ‘-(으)로’는 por, 도구(수단)의 ‘-(으)로’는 con으로 번역된다.

위의 사항에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전치사와 격조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치사 a는 대격, 여격, 때, 지향점 등을 나타내고, por는 때, 수단, 이유 등을 나타낸다. 격조사 ‘-에’는 때, 지향점, 이유(원인) 등을 표시하고, ‘-(으)로’는 지향점, 도구, 수단, 이유 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스페인어 전치사들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용법들에 관하여 심층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격조사들과의 대응 관계를 규명해내는 작업은 효율적인 한-서, 서-한 번역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수연(1989),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김기혁(1995), 『국어문법연구 -형태·통어론-』, 서울: 박이정출판사.
- 김현창(1982), 『스페인어 문법』, 서울: 신아사.
- 남기심(1996), “국어의 격과 격조사에 대하여”, 『국어 문법의 탐구 I』, 서울: 태학사.
- 남기심, 고영근(1989),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1996), 『문법』 고등학교, 교육부.
- 송향근(1996), “한국어와 핀란드어의 격 체계 대조 분석”, 이중언어학회지 13집, 365-398쪽.
- 이만형(1993), 『중학문법』 자습서, 서울: 지학사.
- 이우섭, 임홍빈(1994),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조규빈(1983), 『국문법』, 서울: 지학사.
- 홍윤표(1990), “격조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서울: 동아출판사, 221-232쪽.
- Guy Serbat(1988), *Casos y funciones*, Madrid: Gredos.
- Jean Dubois y otros(1983), *Diccionario de lingüística*, Madrid: Alianza Editorial.
- J. Roca-Pons(1980), *Introducción a la gramática*, Barcelona: Teide.
- Lázaro Carreter F.(1974), *Diccionario de términos filológicos*, Madrid: Gredos.
- Rafael Seco(1975), *Manual de gramática española*, Madrid: Aguilar.
- Valentín García, Y.(1988), *Claudicación en el uso de preposiciones*, Madrid: Gredos.

<Resumen>

El caso, según el concepto tradicional, es una categoría gramatical de tres criterios, forma, significado y función.

El español tiene seis casos que son 'nominativo, genitivo, acusativo, dativo, vocativo y ablativo' mientras que el coreano tiene siete que son 'nominativo, objetivo, vocativo, predicativo, caso adverbial, caso complemento y caso adjetival'. En ambas lenguas existen nominativo y vocativo. Existen predicativo, caso complemento y caso adjetival sólo en coreano.

El acusativo español y el objetivo coreano tiene una misma función de ser objeto directo en la oración. El dativo español y las partículas del caso adverbial '-egue, -hante, -que' representa el objeto indirecto.

En coreano, para expresar el tiempo, hay sólo una partícula del caso adverbial '-e'. Pero en español las preposiciones 'a', 'de', 'por', 'para', etc representan el tiempo. Para indicar el instrumento y el modo, en coreano se usa las partículas '-(eu)ro, -(eu)rosseo' y en español, las preposiciones 'con', 'en' y 'por'.

Las partículas '-sseo, -esseo, -eguesseo' representan el origen o precedencia, mientras que en español los representan las preposiciones 'de' y 'desde'. La causa la representan las partículas '-e, -(eu)ro' y la preposición 'por'.